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비교 연구

권태호*

<차례>

- I. 머리말
- II. 《이족창세사》의 구성과 내용
 - 1. 《이족창세사》의 자료 성격 및 구성
 - 2. 《이족창세사》의 내용 검토
- III.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의 비교
- IV. 마무리

국문요약

중국의 서남부 지역은 창세서사시의 전승에 있어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20여 소수민족이 각각의 창세서사시를 전승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족은 인구분포가 높고 지역별로 다양한 창세서사시를 전승시킨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한 민족이다. 이 글은 이족의 창세서사시 중 윈난성 위엔양현에서 채록한 《이족창세사》를 택해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의 창세서사시 자료와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창세서사시가 지닌 보편성과 개별성을 찾고자 하는 글이다.

먼저 《이족창세사》의 구성과 자료 전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추출한 네 가지 주요 신화소인 천지개벽, 인류의 기원, 일월조정, 문화의 기원 등의 비교항목을 설정해 제주도 창세서사시와 비교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 자료가 《이족창세사》보다 분량도 짧고 창세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응되는 양상을 찾을 수 있다. '천지개벽'은 1)혼돈으로부터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터의 세상창조, 2)천지분리, 3)일월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대비를 한 결과 제주도 자료와 부합되는 양상은 적었지만 이족의 여타 창세서사시 자료나 우리의 육지 창세서사시 자료를 아울러 견줄 때 대응양상이 뚜렷했다. '인류기원'에서는 《이족창세사》의 경우 단계별로 진화되는 과정이 잘 설정되어 있어 그 신화소가 특히 발달된 양상이지만 우리 경우는 제주도 자료보다는 육지의 <창세가>에서 인류기원의 진화론적 면모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홍수범람'은 제주도 창세서사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징치담이 악인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화소로 파악했다. 이외에 '문화의 기원'은 제주도 창세서사시에 이어지는 <열다섯십오성인> 대목이 문화를 가져온 신격들을 교술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응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비교항목에서 제외된 제주도 창세서사시 요소인 천부지모의 결연, 부 탐색, 인세차지경쟁 등을 볼 때, 《이족창세사》는 신의 입장에서 인간 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신화적 관점을 갖는다면 제주도의 창세서사시는 인간의 입장에서 신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어 신화적 세계관에 있어 양자는 서로 차별되는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중국소수민족, 이족, 《이족창세사》, 제주도, 창세서사시, 천지개벽, 인류기원, 일월조정, 문화기원

I. 머리말

중국의 서남부 지역은 창세서사시의 전승에 있어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25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윈난성을 예로 들어 본다면 25개 소수민족 중에 壯族, 彝族, 苗族, 布依族, 侗族, 瑤族, 白族, 土家族, 哈尼族, 傣族, 傈僳族, 佤族, 拉祜族, 納西族, 景頗族, 阿昌族, 普米族, 獨龍族, 苦聰人 등 20여 개 소수민족에게서 각각의 창세신화를 찾

아볼 수 있으며, 이 중 10여 개 민족의 창세신화 자료는 이미 중국 내에서 정리되어 출간되어 있는 상태이다.¹⁾ 중국의 서남부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이처럼 대다수의 소수민족들이 각기 민족별로 창세서사시를 전승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창세서사시 전승의 세계적인 보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소수민족 중에서도 특히 창세서사시의 전승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민족으로는 단연 이족을 꼽을 수 있다. 이족은 윈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등 중국 서남부를 중심으로 770여만 명 정도²⁾가 거주하는 비교적 큰 인구분포를 보이는 소수민족일 뿐 아니라 주로 산악 지대를 중심으로 터전을 잡고 생활해왔기에 신화나 제의를 비롯한 전통 문화의 전승이 비교적 온전히 남아있는 민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태의 다양한 창세서사시가 전승된다는 점에서도 특히 중요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그 창세서사시의 내용 또한 독안인(獨眼人)이나 독각인(獨脚人) 등 비정상적인 인류로부터 점차 정상적인 인간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을 비롯해 천지개벽과 일월조정, 인류의 기원, 홍수범람, 역법(曆法), 혼속, 제전(祭奠) 등 풍부하고 다양한 신화소를 함축하고 있어서 창세서사시로서의 그 가치가 일찍부터 주목되어 왔다. 때문에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토세이지[伊藤清司]³⁾를 비롯해 사쿠라이다쓰히코

1) 李子賢, 「創世史詩의特征」, 『探尋一個尙未崩潰的神話王國』, 운남인민출판사, 1991. 273쪽.

2) 2000년 기준으로 7,762,272명이라고 한다. 쓰촨성 량산지역과 윈난성 추송지역 등 19개 자치현이 이족의 주된 거주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晋忠良, 『彝族』, 中國水利電出版社, 2004. 1~2쪽)

3) 伊藤清司, 「二度の人類起源 - 中國西南少數民族の創世神話」, 『東アジアの創世神話』, 弘文堂, 1989.

[櫻井龍彦]⁴⁾ 등이 일찍부터 이족 창세서사시의 여러 자료에 나타난 특이한 인류기원 등에 관심을 갖는다거나 『西南彝志』에 담긴 이족 창세서사시의 자료 양상에 대해 논의를 전개시켜온 바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족 창세서사시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거나 논의하지는 못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 와서 이족의 문화를 살피면서 단편적으로 그 면모만이 간략히 소개되거나⁵⁾ 쓰촨성[四川省] 량산지역 이족의 제의를 현지조사를 통해 살피는 글들이 발표된 정도이다.⁶⁾ 그런데 이처럼 풍부한 창세서사시가 전승되는 중국 서남부의 창세서사시에 대한 검토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비단 이족의 자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역 여타 소수민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와서 윈난성의 나시족 창세서사시가 소개되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형편이다.⁷⁾

이와 같은 창세서사시의 전승에 있어 중요한 지역인 중국 서남부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이라 할 수 있는 이족의 창세서사시가 지금까지 온전히 소개되거나 논의되지 못한 점은 분명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櫻井龍彦, 「混沌からの誕生 - 《西南彝志》を中心としたイ族の創世神話」, 『東アジアの創世神話』, 弘文堂, 1989.

5) 김선자, 「소수민족신화기행 윈난이야기 - 이족」, 경향신문, 2008. 4. 2. 이 글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윈난성에서 전승되는 《이족창세사》와 《梅葛》 등에 있는 창세서사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6) 홍희, 「양산 이족 비머의 주술」, 『중국소수민족의 원시종교』, 동문선, 2004.
주영하, 「이족의 사머니즘 ; 중국 쓰촨성 량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 5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9.

7) 권태효,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김현선, 「세계 창세신화속에서 본 한국 창세신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민족문화원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Ⅲ 발표자료집, 2007. 11. 1.
한편 서유원, 『중국민족의 창세신 이야기』(아세시문화사, 2002)에서도 한족을 비롯한 중국 여러 소수민족의 창세신화 단편들을 정리하고 있으나 자료 전편을 소개하지는 못했다. 더욱이 이족과 나시족[納西族]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중국 소수민족 중 가장 다양한 신화 전승양상을 보이는 이족의 창세서사시 자료 중 하나인 《이족창세사》⁸⁾를 택해 자료 전반을 온전히 소개 및 검토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족창세사》 자료의 내용 검토를 토대로 중요 신화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신화자료와 비교 검토를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제주도는 중국 서남부에 거주하는 이족과 비교해 주변부에 위치하면서 독자적인 나름의 문화를 잘 전승시켰다는 점, 아울러 현재까지도 제의를 기반으로 창세서사시 전승의 문화가 잘 구축되어 내려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논의의 근거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⁹⁾ 하지만 비교 대상 자료가 단지 제주도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신화 구성요소의 성격에 따라서 여타 육지 자료와도 함께 비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홍수에 의한 인류의 기원을 비롯해 제주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나 육지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자료와 상통되는 요소들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이다.

II. 《이족창세사》의 구성과 내용

이족 창세서사시는 원난성과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이족이 주로 분포하는 중국 서남부지역 세 곳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자료의 채록은 일찍이 1950년대 후반부터 이미 채록되기 시작했으며, 지역별로 나름의 독자적인 내용과 형태를 보이면서 전승되고 있다. 각지에서 전승되는

8) 張仲仁 외 편, 施文科·李亮文 合編, 希吾戈·晉學旺 譯註, 《彝族創世史》, 云南民族出版社, 1990.

9) 김현선은 이족은 아니지만 이런 입장에서 중국 나시족[納西族]의 창세서사시를 제주도의 신화와 비교를 시도한 바 있다.(김현선, 같은 글)

대표적인 이족 창세서사시 자료로는 《彝族創世史》, 《梅葛》,¹⁰⁾ 《查姆》,¹¹⁾ 《阿細的先基》,¹²⁾ 《西南彝志》¹³⁾ 등이 있는데,¹⁴⁾ 이 글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채록 정리되었고, 내용 또한 풍부하고 짜임새있는 자료 양상을 보이는 《이족창세사》를 대상으로 삼아 자료의 전반적인 성격과 내용을 소개 및 검토하도록 하겠다.

10) 원남성 민족민간문화초용조사대, 『梅葛』, 人民文學出版社, 1960.

11) 《查姆》은 운남인민출판사에서 1981년에 출간된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晋珍의 『道家混沌哲學의彝族創世神話』(云南人民出版社, 1993)에 발췌 수록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한다.

12) 《阿細的先基》는 운남인민출판사에서 1959에 이미 출간된 자료이다. 여기서는 晋珍의 『道家混沌哲學의彝族創世神話』(云南人民出版社, 1993)에 발췌해 수록해놓은 자료를 참고한다.

13) 『서남이지선(西南彝志選)』은 귀주인민출판사에서 1982년에 간행한 자료이다. 여기서는 晋珍의 『道家混沌哲學의彝族創世神話』(云南人民出版社, 1993)에 발췌해 수록해놓은 자료를 참고한다.

14) 이족 창세서사시 자료의 전반적인 존재양상 및 전승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권태효, 「중국소수민족 이족의 창세서사시 연구」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권태효, 「중국소수민족 이족의 창세서사시 연구」, 『제주도본풀이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11.15) 그 개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지역 구분	자료명	전승양상	제보자(채록자)	전승지역	간행시기	
1	云南省	《彝族創世史》	기록(이문경전)	施文科, 李亮文	紅河州 元陽縣 新街鄉	1989	
2		《梅葛》	구전	徐嘉瑞	楚雄州 桃安, 大姚, 鹽豐	1960	
3		《查姆》	구전, 기록	郭思九, 陶學良	楚雄州 双柏縣의 底土, 新資, 紅河州 일부 지역	1981	
4		<門米間扎節>	기록	·	楚雄		
5		《阿世的先基》	구전	·	紅河州 일대	1959	
6		<尼蘇彝吉>	·	·	紅河州	1984	
7		貴州省	《西南彝志》	기록	·	貴州省 畢節 지구	1982
8		四川省	<勒俄特衣>	기록	·	涼山	
9			<宇宙混沉沉 猴子創天地>	(구전)	·	涼山 西昌 지구	1963

(이족 창세서사시의 자료 양상)

1. 《이족창세사》의 자료적 성격 및 구성

《이족창세사》는 띠엔난[濱南] 아이라오산[哀牢山] 하단의 이족지구에서 이족문자로 된 고적(古籍)으로 전해지던 자료로, 홍허주[紅河州]의 하니족[合尼族]과 이족 자치주인 위엔양현[元陽縣] 신지엔헝[新街鄉] 웨이부룽촌[水卜龍村]의 빼모어인 스윈커[施文科]와 그 제자인 리량원[李亮文]이 공동으로 소장하고 있는 초본(抄本)을 대상으로 수집 정리하여 1989년에 간행한 것이다. 빼모어인 스윈커[施文科]와 리량원[李亮文]이 공동으로 소장한 초본(抄本)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구전되는 자료이기보다는 이문으로 기록되어 경전에 소재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수집경위 및 수집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 놓고 있지 않아 그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53장 19,000여 행으로 구성된 것 중 창세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22장까지만 번역하여 출간했다는 것으로 보아¹⁵⁾ 앞부분만을 한정하여 한역(漢譯) 출간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전체구성은 1부 만물의 기원과 2부 인류사회의 형성 등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 구성은 서가(序歌)를 비롯해 ‘시니모어가 만물을 낳음’, ‘인류의 기원’, ‘천지가 나누어지기 시작함’, ‘지이가 역법을 정함’, ‘가뭄’, ‘홍수범람’, ‘천지의 생일’, ‘장수와 사망’, ‘혼인의 기원과 변천’, ‘제전(祭奠)의 기원’ 등 10개의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앞의 목차에서 세부적으로 서가 이외에 11개 장(章)을 설정하고 있으나 실제 목차와는 달리 내용에서는 11장의 ‘이문(彝文)’이라는 부분이 실려 있지 않아 출판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그들의 문자인 이문이 생긴 내력까지를 담으려 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이유에서 내용이 누

15) 施文科·李亮文 合唱, 希吾戈·晉學旺 譯주, 같은 책, 1쪽.

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앞에 별도의 서가(序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아 전체 11개의 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아도 될 듯하다.

어떻든 <이족창세사>는 1장에서 4장까지를 묶어 1부 '만물의 기원'이라 했고, 4장부터 10장까지를 묶어 2부 '인류사회의 형성'라고 구분하고 있다. 이런 1부와 2부 구분은 아마도 책을 간행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임의로 붙여진 구분으로 보인다. 아울러 10개의 장으로 나는 것 또한 전언(前言)에서 '창세사(創世史)'에 속하는 22개 장(章)을 한역(漢譯)하여 수록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원난성 소수민족 고적정리 출판실에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 10개의 장으로 임의로 묶었거나 혹은 몇몇 장에서 세부 목차로 나눈 부분들이 원본의 22개의 장으로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족창세사》는 아허시니모어[阿赫希尼摩]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창조여신인 아허시니모어가 세상의 만물을 잉태하고 낳아 길러 이 세상이 창조되고 세상이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과정의 내용을 담은 이족의 창세서사시이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아허시니모어라는 창조여신이 세상만물을 잉태하여 낳아 기르는 데서 시작해 오색의 물고기가 원숭이로 변했다가 독각인(獨脚人)으로 변하고 여기에서 다시 진화하여 인간으로 발전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류기원, 그리고 농사법과 의식(儀式)의 기본이 되는 역법(曆法)의 기원, 불의 기원, 홍수범람, 죽음의 기원, 혼인의 기원, 제전의 기원 등 다양한 기원 유래를 밝히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다. 《이족창세사》는 《梅葛》, 《查姆》, 《阿世的先基》, 《西南彝志》와 더불어 가장 풍부한 신화소를 담은 이족 창세서사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 《이족창세사》의 내용 검토

1) 서가(序歌)

먼저 서가(序歌)에서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이런 옛 노래의 연원이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전해줘야 한다는 것을 장황한 비유법을 들어 이끌어가는 도입부 부분이다.

시니[希尼]¹⁶⁾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보면
시바일레[希白勒]¹⁷⁾에서 나왔네.
천지 인간세상에
물종(物種)이 수만 가지인데
조상의 근원을 찾아보면
시니모어[希尼摩]에서 비롯되었다네.
시니의 이야기는
내 말을 들어보소.
사람의 조상과 원숭이
들 사이에는 연원이 있는데,
연원이 어떤 것이냐는
아무도 말로 잘 설명하지 못하네.¹⁸⁾

창세서사시 서가의 맨 첫 부분으로 창조여신 아허시니모어로부터 세상만물이 비롯되었음과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로부터 연원이 있음을 밝

16) 시니[希尼]는 이족어(彝族語)의 음역으로서 아허시니모어[阿赫希尼摩]를 가리킨다. ‘아헤[阿赫]’는 성이고 ‘시니[希尼]’는 이름이다. 시니는 만물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보통 ‘시니모어[希尼摩]’ 혹은 ‘아허시니모어[阿赫希尼摩]’라고 부른다. ‘모어[摩]’는 ‘어머니’라는 뜻이다.

17) 시바일레[希白勒]는 이족어의 음역으로, 전설에 의하면 이것은 궁창에 걸려있던 구형(球形)의 물체였다고 한다. 아허시니모어는 시바일레에서 자랐다.

18)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1쪽.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세상이 만물의 어머니 아허시니모어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인류의 기원이 원숭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미리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창세서사시 내용에서 아허시니모어의 창세과정과 원숭이로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기원이 중요하게 언급될 것임을 밝혀놓은 것이라 하겠다. 인용한 부분 뒤에는 다양한 비유를 반복하여 들면서 《이족창세사》가 엉터리로 구연되어서는 안되고 온전히 구연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덧붙여 있다.

2) 아허시니모어(阿赫希尼摩)가 만물을 잉태하고 낳아 기름

이 부분은 《이족창세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만물의 어머니인 아허시니모어가 만물을 잉태하고, 낳아서 기르며, 그렇게 자라난 것에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는 것 등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잉태함’에서는 아허시니모어의 생김새부터 제시된다. 머리는 사자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산과 같으며, 등에는 얼룩무늬 용 비늘을 갖고 있다고 한다. 또 뱃가죽에는 이름과 성이 ‘아허시니모어’라고 쓰여져 있다고 밝히는 등 그 생김새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창조여신의 형상이 보통은 추상화되거나 막연하게 묘사되는 것과 달리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 귀가 14개, 눈이 6쌍이 있으며, 온몸에 젖이 28개라고 하는 등 그 형상을 온전하게 연상할 수는 없지만 만물을 창조하여 기르기 위한 신체적 조건을 구비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시니의 뱃속에는 9천층이나 되는 위(胃)가 있어 모든 만물이 여기에서 자란다고 하였다. 각종 식물과 갖가지 동물, 날짐승 등을 비롯해 만물이 시니의 뱃속에서 길러져 9만9천9백9십9번

을 변화였다고 한다. 이런 잉태가 있기 전에는 혼돈의 상태였다고 한다.

다음은 ‘낳아 기름’ 부분이다. 아허시니모어는 궁창(穹蒼)에 걸려있는 구형의 시바일러[希白勒] 안의 셔츠해[奢徹海]에서 잠을 잤다고 한다. 세상창조의 원수(原水)관념이 바탕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니는 하늘과 땅, 일월, 구름, 안개, 노을, 바람, 빛 등의 여러 자연현상을 낳았고, 천지간의 모든 신령을 총괄하는 신인 셔어무[奢俄木를] 비롯한 각종의 신들을 낳기도 한다. 또한 이서(彝書)를 낳고 괘(卦)도 낳았다고 한다. 시니는 계속해서 물의 요괴와 각종 동물들도 모두 낳았다. 시니는 천 접의 위를 가지고 천지와 해, 달, 별 등 천체를 비롯해 온갖 만물을 덮어주었고, 28개의 젖을 먹여서 만물을 길러냈다. 그리고 시니의 젖이 한 방울씩 떨어져 산천초목이 생겨났다.

끝 부분은 ‘이름짓기’로 시니가 낳은 셔구바일러[奢古白勒]신이 만물이 자라나자 각기 이름을 붙여주는 부분이다. 하늘과 땅, 달, 구름, 등의 자연과 나무, 곡물 등의 식물, 그리고 갖가지 동물에게도 하나하나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마을과 길, 호수, 바다 등에도 이름을 붙여준다. 이처럼 창세과정에서 만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여타 창세서사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신화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세상만물은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3) 인류의 기원

‘인류의 기원’에서는 세상에 생물이 처음 생겨나는 과정에서부터 출발하여 5색의 물고기로부터 변한 원숭이가 화식을 통해 점차 수안인(豎眼人)으로 변하고, 이런 수안인이 서로를 속이고 신을 섬기지 않자 신이 곡식의 종자를 거두어 돌아가 세상을 황폐하게 하는 징벌, 그리고 건곤

문(乾坤門)을 걸어 잠궈 어둠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등 인류창조 및 수안인에 대한 정치가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는 장이다. ‘만물의 종자를 뿌림’, ‘건곤문을 걸어 잠금’, ‘건곤문을 열다’ 등 3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량이나 내용상 건곤문을 걸어 잠그고 여는 것은 함께 묶여도 좋을 듯하다.

먼저 ‘만물의 종자 뿌림’에서는 시니가 낳은 천신 어아미[額阿麻]가 천궁(天宮)의 궁문에서 땅을 굽어보고는 산과 산림, 바위, 길 등에 인종, 양식, 동물 등의 종자를 뿌려서 못 생물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된다. 그 뒤 서주[奢阻]바다에서 노닐던 5색의 물고기가 날이 갈수록 변하여 5색의 원숭이로 변한다. 원숭이들이 무리를 지어 고산(高山)에 기어올라 뚜어루어이엔[多羅岩]에서 잠을 자고 밀림에서 열매를 따먹고 무리를 지어 살며 번성하였는데, 원숭이가 네 다리로 땅을 걷기 불편해 걷는 법을 배워 산을 오르다 돌을 잘못 밟아 돌이 떨어지며 불꽃이 일어나 대지를 태웠고, 불에 타죽은 동물을 먹고는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모양이 된다. 원숭이는 먼저 독안인(獨眼人)으로 변했다. 즉 즈이루어[指依若]이라는 원숭이가 눈 하나, 팔 하나, 다리 하나가 달린 인간이 되었으나 일찍 요절한다. 그 뒤 다시 칠십 이만을 변하여 수안인(豎眼人)으로 발전한다. 두 눈이 수직으로 놓이고 두 다리와 두 팔의 길이가 같은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인류가 생긴 후에 지신(地神) 어아비[額阿毗]는 인간을 각처에 나누어 살게 하였다. 수안인 시대에는 연월일시도 없었고 굶주리며 헐벗은 생활을 했다. 수안인(豎眼人)은 서로 속이고 조상과 신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자 어아비가 곡식의 종자를 거두어 천궁으로 돌아가버렸다.

그 다음으로는 ‘건곤문을 걸어 잠금’과 ‘건곤문을 열다’가 이어진다. 천군 서어무[奢俄木]는 천신 어다더[俄達得]에게 시켜 수안인을 징벌하

도록 시킨다. 어다더는 36층의 하늘과 땅, 해와 달 등을 모두 잠그고 천지일월성(天地日月星)의 12개 길을 모두 잠그자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수안인이 기어다니고 세상의 혼란이 극심해지자 천신 어다더가 건곤문을 열게 한다. 천지일월과 모든 문을 열어젖히자 태양이 뜨고 세상에 밝음이 찾아온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인류의 기원’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불의 기원 및 화식(火食)을 통해 원숭이가 불완전한 존재이나마 인간으로 변한다는 설정이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원숭이가 직접으로 걸어다니다가 돌을 밟아 불을 일으키고 화식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불의 기원신화적 면모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불은 인류의 아주 중요한 문화적 발견으로 불의 발견에 따른 결과로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생겨났다고 하는 의식은 문화의 발전과 인류의 진화를 연결시키는 사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족은 주로 산악지대에서 생활을 하여 불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다. 때문에 제화절(祭火節)과 화파절(火把祭)과 같은 불축제이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¹⁹⁾ 신화에서도 불의 기원신화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메이꺼》에서는 천상의 늙은 용이 부시를 부딪치게 하여 그로부터 불을 갖게 되었다거나 《서남이지》에서는 사모괴(史慕魁)라는 인물이 불을 발명하였고 이후로 야수들이 불을 두려워하여 인간과 헤어져 살게 되었다고 하는 등 이족의 여타 창세서사시에서도 불의 기원신화가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는 원숭이가 돌을 잘못 밟아 불이 처음 생겨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뒷부분의 ‘홍수범람’에서는 홍수로 불씨가 세상에서 사라지자 하늘에서 나비를 통해 불씨를

19) 권태효, 같은 책. 이 책에서는 원남성 홍허주 미륵현의 제화절 불 축제 사례를 들어 불을 경배하는 이족의 제사의식을 살피고 있다.

전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불의 기원이 거듭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인류의 변화과정에 대한 인식이 잘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먼저 천신 어아마가 만물의 종자를 뿌린데서 시작하여 5색의 물고기 → 원숭이 → 독안인(獨眼人) → 수안인(豎眼人) → 횡안인(橫眼人) 등으로 변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양의 인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리와 덕을 몰라 끊임없이 징치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안인까지만의 변화과정을 제시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류의 진화과정을 단계별로 잘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생겨난다는 모습은 이족 창세서사시의 여타 전승본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설정이다. 한편 횡안인은 뒤의 홍수범람 후 생겨난 인류로 비로소 정상적인 인간의 형상을 지녔고 도리와 덕을 아는 존재였다고 한다. 변화과정은 여러 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나 크게 보아 신이 최초로 진흙과 같은 것을 만든 인간이 홍수로 멸망하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는 홍수신화의 공식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듯 눈의 생긴 모양에 따라 온전한 인간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앞에서 언급했던 <先基>의 인류 진화과정과도 대응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셋째는 비정상적인 인류에 대한 징치가 거듭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류의 기원'에서만 이미 수안인에 대한 두 번의 징치가 보인다. 곧 지신 어아비가 곡식의 종자를 거두어 천궁으로 돌아가자 극심한 굶주림에 고통받는 것이 첫 번째이고 건곤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칠혹같은 어둠을 내려 세상을 혼란하게 만든 것이 두 번째 징치이다. 물론 이 다음에도 가뭄, 홍수 등 여러 단계의 징치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홍수범람 이전의 인류 곧 신체상 불완전하고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존재인 수안인에 대해 거듭된 징치가 나타나는 점은 다른 민족의 창세서사시에

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특이한 양상이라고 하겠다.

한편 우리에게 홍수범람 이전 창세시의 인류기원을 온전히 다루는 자료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창세가>에서 미륵이 하늘에 축수하여 얻은 금벌레 은벌레로부터 인간 남녀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제주도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 또는 일월성신이 마련된 후 인방(寅方)으로부터 사람이 솟아났다고 하는 정도가 있을 따름이다.²⁰⁾ 이렇게 본다면 《이족창세사》를 비롯한 이족의 창세서사시는 홍수범람 이전 최초의 인류기원이 장황하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등 크게 발달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 자료의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많이 약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서 대비가 된다고 하겠다.

4) 천지가 나누어지기 시작함

하늘과 땅, 태양과 달, 천신과 인류가 분리되지 않아 우주가 혼란스럽고 안정되지 않자 천군(天君) 셔어무[奢俄木]가 비구[比古]와 판구[盤古]에게 시켜 하늘과 땅을 나누도록 했다. 비구는 어스뿌[額斯布]에서 천지를 나누고는 하늘과 일월, 노을과 운무, 바람, 비, 별, 구름 등 자연 현상이 생기도록 했다. 또 각각의 신들에게 일을 분담해주어 각자 기거하는 곳과 직책이 생겨나게 되었다. 판구는 헤니루어빠[黑尼羅壩]에서 땅을 나누어 동서남북을 어무[俄木](부락의 수장)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말, 소, 양 등의 가축과 사람을 안배하여 만물이 제자리를 잡도록 했다.

20)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금화사(동경), 1973. 고대중 구연의 <천지도업> 뿐 아니라 강일생 구연의 <베포도업침>이나 박봉춘 구연의 <초감제> 등 대부분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천지분리가 다소 약화된 모습으로 보인다. 만물을 창조하는 아하시니 모어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히려 천지분리는 각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천지분리와 관련 다음에 나오는 '지이[噤依]가 역법을 정함'에 다음과 같은 부분이 들어있어서 주목된다.

지신 어아비[額阿毗]는
 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어아비의 뼈는
 전부 하늘이 만들었고
 어아비의 살[肉]도
 땅으로 구성되었네.²¹⁾

연월일시가 마련한 뒤 율력에 따른 농사법을 제시하는 그 앞에 삽입된 내용으로, 지신 어아비의 뼈와 살이 곧 하늘과 땅을 구성했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족창세사》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 새로운 내용의 천지분리가 압축되어 끼어든 양상이다. 《메이꺼》에서 호랑이뼈로 하늘을 받치고, 그 신체부위에서 세상만물이 화생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는 대목으로, 《이족창세사》가 구전되면서 또는 문헌으로 정리되면서 복합적인 천지창조의 과정이 누적되어 나타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된다.

5) 지이(噤依)가 역법을 정함

'지이가 역법을 정함'은 검은 측백나무가 자라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

21) 晋珍, 같은 책, 29쪽.

자 그 나무를 베어 밝음을 회복하고는 푸른 측백나무의 생긴 형상에 따라 연월일시의 역법을 정하고 이런 역법에 따라 농사법과 제향법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어둠으로부터 밝음을 회복하는 형태의 일월회복 신화소가 나타나고 있어 특이하면서도 흥미롭다. 전체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역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연월일시가 없으며, 낮과 밤의 구분도 없었다. 태양과 달이 세상을 비춰 세상이 밝았었는데, 달의 중심에 푸른 측백나무 한 그루와 검은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검은 측백나무가 빠르게 자라 꼭대기의 태양을 받치고 가지와 잎이 사방으로 무성하게 퍼져 태양과 달을 가려 세상이 암흑으로 변했다. 지이서저[噤依奢則]神이 하늘에 와서 인간세상의 정황을 서어무에게 보고하자 어무가 지경쯔[徹埂自]에게 시켜 사정을 알아오게 한다. 먼저 다람쥐와 청사(靑蛇)를 시켜 알아보게 했지만 검은 측백나무가 너무 커서 실패한다. 이번에는 원숭이를 보냈더니 나무 끝까지 올라가 보고는 돌아와 검은 측백나무의 줄기와 잎이 너무 무성하여 하늘을 가렸다고 한다. 천군 서어무는 다시 티에바이지성[鐵白噤生]을 원숭이를 따라가게 했고, 티에바이지성이 나무 밑에서 쇠뇌[桴]를 쏘니 잎이 7개 떨어졌고, 다시 쏘니 잎이 9개, 그 다음은 가지가 하나 떨어지면서 빛이 미약하게 보였다.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자 치경쯔는 8명의 신을 보내 검은 측백나무를 베게 했다. 하지만 베다가 피곤하여 잠이 들면 나무가 다시 붙어버려 벨 수가 없게 되자 4명씩 교대로 하여 베어버릴 수 있었고 그 베어낸 나무를 태워 검은 측백나무를 완전히 없앴다. 푸른 측백나무만 남게 되자 태양과 달과 별이 나와 세상에 밝음이 회복되었고, 수안인은 모두 기뻐했다. 지이서저[噤依奢則]神은 푸른 측백나무 옆에 여러 신을 모아서 그 나무의 뿌리, 가지, 줄기, 잎의 수에 따라 1년, 12월, 12시, 360일의 연월일시의 역법을 정한다.

그 뒤 지이서저신은 규장(規章)과 예절, 각 절기를 자세히 규정해 주었으며, 월력에 따라 파종 및 곡식의 수확 등 농사법을 마련하였고 시기별

제항법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수안인은 여전히 절기에 맞게 농사를 짓지 않고, 규장제도도 따르지 않는 등 도리와 덕을 알지 못했다.²²⁾

창세서사시에 있어 주요 신화소 중 하나는 ‘일월조정’이다. 복수로 출현한 일월의 혼란을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일월조정’ 신화소는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를 비롯해 <창세가> 등 육지의 창세서사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고,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분포양상을 보인다.²³⁾ 이족의 경우도 《메이꺼》에서는 꺼즈[格滋] 천신이 뿌린 눈으로부터 생겨난 제 2대 인간 때 하늘에 해 9개, 달 9개가 출현하여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자 꺼즈 천신이 왼손에는 송곳을 들고 오른손에 망치를 들어 해와 달 각기 한 개씩만 남겨두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으며, <러어티이[勒俄特衣]>와 같은 자료에서도 6개의 태양과 7개의 달 등 복수로 출현하는 일월을 정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족 창세사》에서는 흥미롭게도 복수의 일월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닌 밝음을 잃어버려 그 어둠으로부터 밝음을 회복하는 형태로 신화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어둠으로 인한 혼란은 앞서 ‘건곤문을 걸어잠금’에서도 나타났는데, 그것이 신의 의도적인 징치의 수단이었다면 여기서의 어둠은 예기치 못한 우주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어둠으로부터 밝음을 회복하는 신화소는 창세서사시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복수의 일월을 조정하는 신화소와 대칭적 축에 서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곧 일월이 너무 많이 출현하여 생기는 혼란과 아예 사라지거

22)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25~30쪽.

23) 김현선, 「‘일월조정’ 신화소의 전승과 변이」,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이 책에서는 우리의 창세신화에 나타난 일월조정 신화소의 전승양상 및 다른 나라의 일월조정 신화소 자료가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정리해놓고 있다.

나 나타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은 서로 상반된 현상이지만 일월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인간세상에 재앙이 생긴다는 점은 마찬가지로이다. 따라서 우주의 혼란의 연장선상에 있는 설정인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처럼 사라진 일월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화소는 우리의 창세서사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면모라는 것이다. 복수의 일월이 출현함에 따른 일월조정이 창세서사시의 일반적인 신화소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족창세사》의 ‘지이가 역법을 정함’에서 보듯 어둠으로부터 밝음을 회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월조정 신화소의 한 양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런 면모를 보이는 각편이 찾아보기 어렵지만 《관서지방무가》 정운학본에서는 일월을 회복하는 것이 창세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력님이/할 일 없어
 해 달 잡아/도롱소매에다
 가두시고/水火 잡아
 地下宮에 가두시고
 하늘로서/승천을 했소
 (중략)
 석가 열이/이 世上에
 世上 配布/나오실 적에
 四月이라/초 八日날
 세상 배표를/나오신다
 캄캄하고/어두워서
 었어디면/자빠디면
 하늘널을/내레가서
 채도사를/불러놓고/묻는 말이

여보세요/채 도사요
 해 달 잡아/어디다 뵈나
 채 도사가/하는 말씀
 미력님이/하신 일을
 나는 가서/모읍니다
 석가열이/할 수가 없어
 매를 들어/채 도사를/치는구나
 채 도사가/매에 못이겨
 개는 직고/하엿더라
 그적에야/도롱소매에서
 해 달 잡아/내어놓니
 이 세계가/밝았더라
 日月일랑/明朗을 하여
 낮이 되면/해가 뜨고
 밤이 되면/달이 뜬다²⁴⁾

곧 미륵이 해와 달을 잡아 도롱소매에 가두고 하늘로 올라가자 어둠에 따른 혼돈이 생기면서 석가가 채도사를 잡아 일월을 회복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어둠으로부터 밝음을 회복하는 형태는 일식과 월식의 기원으로 나타나는 까막나라의 불개 이야기나²⁵⁾ 더 나아가 <연오랑 세오녀>, 일본의 아마테라쓰[天照大神]가 동굴로 들어가버려 세상이 암흑에 잠기고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화 등도 잃어버린 일월을 회복하는 자료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렇게 본다면 복수의 일월을 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24) 정운학 구연, <삼태자풀이>, 임석재·장주근, 『관서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6. 521~526쪽.

25) 임석재,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이유>, 임석재전집7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0.

일월을 회복하는 것 또한 창세서사시의 중요한 신화소임을 확인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장에서 어둠을 내림에 있어 검은 측백나무와 푸른 측백나무 등 두 그루가 동시에 출현하는데, 검은 측백나무가 특히 해와 달을 가려 해악을 끼치고 푸른 측백나무는 역법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등 긍정적 구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곧 두 개의 나무가 나타난데서 하나의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른 하나의 나무를 남기는 형상은 한편 복수로 나타난 태양과 달을 쏘아 떨어뜨려 사라지게 하는 형태의 변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이족창세사》를 비롯한 《메이꺼》 등 이족 창세서사시에서는 이처럼 역법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신화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메이꺼》에서는 소나무, 종려나무, 파근초(爬根草)가 자라는 것으로 연월일을 구분하고, 삐꾸기 등 새의 울음소리로 사계를 구분하는 것이 나타난다.²⁶⁾ 그런데 역법은 단지 연월일시를 생기게 한다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월력과 절기에 따라 농사법을 마련해주는 것이며, 신에게 제를 올려야 하는 날을 잡아주는 제향법을 마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농경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 하자 절기에 따라 농사짓는 것이 필요했고, 그래서 연월일을 나누고 4계절을 나누자 비로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다”²⁷⁾라고 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역법은 농사법의 필수요건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창세서사시에 반영된 모습이라고 하겠다.

26) 원난성 민족민간문화초응조사대, 같은 책, 97~98쪽.

27) 위의 책, 96쪽.

6) 가뭄

《이족창세사》의 내용상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수안인에 대한 징치가 거듭되어 나타나고 그 양상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이다. 여타 창세사사시에서는 신의 징벌로 홍수범람이 일어나고 선택받은 인류 이외에는 인류가 멸망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는데, 《이족창세사》에서는 홍수 이전에 수안인에 대한 징치가 거듭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수안인에 대한 징치는 지신 어아버가 곡식의 종자를 거두어 돌아감 → 건곤문을 걸어잠궈 어둠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함 → 극심한 가뭄을 내림 등으로 홍수범람 이전에 이미 신에게 제를 올리지 않고 도리와 덕을 모르는 수안인에 대한 징치가 세 번이나 연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장 곧 ‘가뭄’은 수안인에 대한 징치를 보여주고자 마련된 장이며, 아울러 선한 사람에게 농사의 풍요를 내리는 과정이 흥미롭게 서술되고 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안인이 도리와 덕을 몰라 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자 장룡(長龍)이 용왕부에 수안인을 고발한다. 이것이 천군 서어무에게 보고가 되었다. 서어무는 다시금 수안인을 징벌하고자 대용왕 아자[阿扎]에게 명해 모든 수룡(水龍)을 큰 표주박에 가둬버리고, 또 천신 거마찌[革麻則]에게 명해 인간세상에 모든 길의 신을 천궁에 가두도록 했다. 이들이 갇히자 세상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게 되었다. 수안인이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서어무에게 탄원하자 신에게 제를 올리면 가뭄이 사라질 것이라 한다. 수안인은 돼지를 잡고 향을 피워 9일 밤낮을 제를 올렸으나 비가 오지 않자 대규모 행렬을 이뤄 경성으로 나아가다가 용왕 아자를 만난다. 그들은 함께 어무의 관청[俄木府]에 가서 6년째 비가 오지 않아 인간이 멸절할 지경이라 하자 용왕 아자를 찾아 모시도록 한다. 아자가 자신이 아자임을 밝히나 행색을 보고는 믿지 않다가 탁자에 올린 아자의 표주박을

많은 사람도 들어올리려 해도 하지 못하자 비로소 깨닫고 아자에게 비를 내리도록 사정한다. 아자가 가는 비를 내리자 큰비를 요청해 9마리의 용을 불러내 사흘 밤낮 큰비를 내려 가뭄을 해소해주고 극진한 대접을 받는다. 작별 후 용왕 아자는 미꾸라지와 드렁허리[黃鱔]를 잡아서 구워서 그것을 동서남북에 놓으니 곧 용으로 변하여 곳곳에 용담(龍潭)이 생기고 물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는 여정을 계속하는데 치에터[切特]지역의 농부가 메밀 농사를 짓다가 인사하며 메밀떡을 대접한다. 아자는 고마움의 표시로 드렁허리를 주었더니 서로 양보하며 먹지 않았다. 하지만 아자가 치에터의 대추장 집을 찾아 밥을 구걸하고 잠자리를 청하자 행색을 보고는 업신여기며 부엌에서 자도록 한다. 다음날 아자가 마을에 용담을 생기게 하자 치에터 추장이 내 땅에 생긴 용담이니 내 것이라며 기뻐했다. 아자가 치에터를 떠나 다니[達尼]로 가서 추장을 만나니 비루한 행색에도 극진히 모시고 대접한다. 아자가 떠나며 앞으로 재앙도 없고 부유하게 될 것이라고 축원하며 떠나려 하자 땅은 있으나 물이 없어 수확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다니추장에게 치에터에 있는 용담을 수로를 파서 끌어오도록 종용한다. 다니추장과 치에터추장이 서로 다투다 어무를 심판 보도록 하고 수로를 불러내는 시합을 한다. 먼저 치에터추장이 돼지를 잡고 조아리면서 부르니 용이 나오지 않고 다니추장이 부르니 금방 용이 나왔다. 다니추장이 이겨 물을 끌어왔고 아자를 극진히 대접한다. 용왕 아자는 미꾸라지와 드렁허리로 곳곳에 용담을 만들고는 용궁으로 돌아가자 농사가 풍년이 들게 되었다. 하지만 수안인은 여전히 도리와 덕을 알지 못했다.²⁸⁾

이런 내용의 ‘가뭄’은 장을 나눠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용상 ‘가뭄으로 부터 비를 얻는 과정’ 부분과 ‘용왕을 잘 모시고 선량함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담을 내려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 줌’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부분에서 수안인을 정치하는 방식으로 가뭄이 활용된

28) 張仲仁 의 편, 같은 책, 31~47쪽.

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이지만 우리의 자료와 관련해 본다면 뒷부분이 특히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가 음식을 요청했는데 박대하는 쪽에는 용담(龍潭)을 빼앗아 버리고 소박하나마 정성껏 대접을 하는 쪽에는 용담을 내려 풍요를 가져다준다고 하는 사고는 제주도 <세경본풀이>에서도 그대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곧 <세경본풀이> 말미에 자청비가 오곡 열두시만국[五穀十二神萬穀]을 받아 지상에 내려와 정수남을 만나게 되는데, 정수남이 배가 고프다고 하자 9마리 소에 아홉 머슴을 거느린 밭에 가서 음식을 얻어먹게 하나 욕을 하며 박대하자 대홍년을 내리고, 두 늙은이가 호미농사를 짓는데 가서는 밥을 후히 얻어먹자 대풍년을 내리는 것이다.²⁹⁾ 일하는 밭에 가서 음식을 구걸하자 박대한 쪽에는 흉년을 내리고 음식을 대접한 쪽에는 풍년을 주는 설정이 있어 서로 동일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용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곧 농사의 풍요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뭄이 곧 수안인의 정치를 위한 수단이라는 하지만 물을 관장하는 용왕이 선량한 사람 또는 마을을 선택해 농사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것은 농신적 기능도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용왕 아자는 세상 곳곳에 용담을 만들어 풍년을 들게 했다고 하여 농사의 풍요신적 기능 또한 수행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 농경기원신화인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의 권능을 보여주는 부분과 같은 형태로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 기능상 합치되는 양상이라고 하겠다.

29)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98~299쪽.

7) 홍수범람

‘홍수범람’은 수안인에 대한 마지막 징치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오늘날 모습과 같은 형상을 지니고 도리와 덕을 아는 인류인 횡안인(橫眼人)이 생겨났다고 한다. 신이 원하는 인간창조가 비로소 이루어진 셈이다. ‘홍수범람’에서는 수안인이 윤리와 도덕을 모르고 악하여 홍수로 징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상은 기존에 생성된 비정상적인 인류의 파괴이면서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의 창조행위 마무리 작업이기도 하다. 우선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안인은 윤리와 도덕을 몰라 천군 셔어무가 사성[沙生]神과 치경쯔[徹堯茲]를 보내 인간세상을 살피게 했다. 도처에 다니면서 오랜 기간을 구걸을 했으나 아무도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 사성과 치경쯔가 길에서 뚜아무[都阿木]를 만나 점심을 요청하자 자신이 가진 메밀떡을 주었고, 허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자 환영하면서 술과 고기로 3일을 극진히 대접한다. 두 신은 세상사람들이 모두 악한데 당신만이 착하다고 하면서 곧 홍수가 일어날테니 자귀나무로 관을 만들고 메밀떡을 식량으로 준비하여 봉납으로 목관의 입구를 발라 봉하라고 당부했다. 뚜아무가 천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홍수가 일어났다. 7일 밤낮을 폭우가 내려서 세상이 온통 물에 잠겼다가는 물러갔다.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들오리 한 쌍, 미꾸라지와 드렁허리, 그리고 뚜아무 등 셋뿐이었다. 뚜아무는 반려자를 찾고자 곳곳을 다녔으나 개나 닭, 사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불씨마저도 없어 추위에 떨었다. 사성과 치경쯔가 파리와 나비를 보내 불씨를 전해주자 香木을 잘라 향을 피웠더니 천군 셔어무가 보고는 인종이 끊어져서는 안된다며 사성과 치경쯔에게 나무저[尼木則]의 딸 등 천상의 5선녀를 뚜아무에게 시집보내도록 했다. 혼인 후 네 아내는 자식이 없었으나 오직 사성의 누이만이 남녀 각 6쌍의 자식을 낳아서 그들이 동서남북에

각 한 쌍씩, 중앙에 두 쌍이 살게 되어 이들이 이족을 비롯한 각 종족의 시조가 되었고, 이후로 뚜아무의 자손이 널리 번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횡안인(橫眼人)으로 도리와 덕을 알았고 규장제도를 잘 따랐다.³⁰⁾

《이족창세사》의 '홍수범람'은 여타의 홍수신화적 범주를 크게 벗어나는 자료는 아니다. 홍수의 원인은 인간의 사악함 때문으로 나타난다. 천군 셔어무는 수안인이 도리와 덕을 모른다고 하여 인종을 바꾸고자 하는 의도로 홍수를 내린다. 《메이꺼》에서 곡식을 낭비하고 나쁜 마음씨를 지닌 직안인(直眼人)을 징치하려는 것과 동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이족창세사》에서는 사성과 치경쓰를 시켜 인간의 사악함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들이 구걸을 하며 세상을 다니나 아무도 물과 음식을 나눠주지 않았으나 뚜아무만이 먹을 것을 주는 선량한 사람이어서 두 신에게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모습은 본격적인 홍수신화로 전개되지는 않지만 인간의 사악함을 확인하고는 그 곳에 있는 선인(善人)만을 남기고 물로써 징치를 하는 <장자못전설>이나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등의 우리 자료와도 상통하는 면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홍수범람'에서 선택받은 인류가 구출되는 양상에서는 《메이꺼》, 《차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족 창세서사시에서는 주로 조롱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자귀나무 관이 이용되며, 또 최후의 생존자가 남매가 아닌 남자 1인으로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따라서 배필을 찾아나서나 결국 찾지 못하자 결국 천상의 선녀 다섯을 구해 결혼을 시켜주는 양상으로, 천녀지남(天女地男)의 형태로 나타나 원난성의 나시족 <창세기>와도 닮아있는 모습이다.

30)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48~61쪽.

곧 從忍利恩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어 阿普阿仔의 딸과 결혼하여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전개되어³¹⁾ 흡사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결혼을 위해 천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는 통과와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아 천녀와의 결혼이 단순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5선녀 중 사성의 딸만이 아이를 낳는다고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아이를 얻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왜 그런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런 결과로 여러 민족의 기원이 되는 모습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족의 여타 창세서사시 뿐 아니라 중국 서남지역 소수민족 창세서사시의 공통적인 요소인 것으로 보인다. 한족을 비롯한 여러 소수민족들이 동일한 인류시조로부터 생겨났다는 인식으로 이들 민족들이 오랫동안 그 지역에 함께 거주하면서 생겨난 소산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이족창세사》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인류기원으로 생겨난 족속이 남방의 한 쌍이 이족, 동방의 한 쌍은 아나[阿納], 서방의 한 쌍은 투푸[吐譜], 북방의 한 쌍은 터바이[特擺], 중앙은 두 쌍을 분가시켜 야오러[搖熱], 푸즈[夫芝]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 민족은 이족의 음역으로 옛적의 족속인데 현재는 어떤 족속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아 《이족창세사》의 연원이 오래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면일 수 있겠다.

8) 천지의 생일

하늘과 땅, 태양, 달, 별, 흰구름, 안개, 노을, 바람 등 천지와 천체,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각각의 생겨난 날을 12지 동물의 연월일시에 맞춰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이 날이 되면 이들 자연에 제를 올려야 한

31) 권태효,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내용이 짧고 단순하며, 나열식이다. 자연을 섬기는 이족의 문화가 잘 반영한 신화적 설정인 것으로 보인다.

9) 장수와 사망

이 세상이 처음 생겨났을 때 인간은 영생을 했으니 나중에 죽음이 생겨나게 된 그 기원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장수’와 ‘사망의 출현’ 등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사망’에서는 시니가 처음 세상 만물을 낳았을 때는 모두가 장수하였다는 것과 여러 신 및 조상들이 장수했던 수명을 차례로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망의 출현’에서는 본격적인 죽음기원신화가 전개된다.

옛날 뚜어루어이엔[多羅巖] 절벽의 동굴에 한 무리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숭이 한 마리가 죽자 원숭이들은 놀라며 죽은 원숭이를 관속에 넣고는 꽃과 야생과일 등을 따다 바치고 왁자지껄하게 떠들면서 놀았다. 그 소리를 천신이 듣고는 파리를 보내 그 사정을 알아보게 하고 다시 이사오리모어[依勾里嫫]신을 인간세상에 내려보내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게 하니 원숭이 한 마리가 죽었는데 원숭이 무리들이 좋은 일이 생긴 것처럼 경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사오리모어신은 지신(地神)을 불러 원숭이는 죽기를 바라는데, 인간 또한 죽기를 원하는지 알아보도록 시켰다. 지신이 온 사방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사람이 늙어 머리가 희어져도 죽지를 앓아 항상 젊은 사람이 곁에서 보살펴야 하고 그 숫자도 너무 많으니, 머리가 희어지면 죽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지신이 이 말을 듣고 하오루어[豪羅]에게 시켜 사방의 사람들과 용왕부, 염라부에 가서 “머리가 흰 사람만 저승에 오게 하고 머리가 희지 않으면 오지 않게 해라. 청년, 어린아이, 아기들은 못 오게 하라”라고 전하게 하였으나 하오루어가 이 말을 전하러 가다가 소똥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그 말을 잊어버려 “머리

가 흰 사람은 저승에 오게 하고, 머리가 검은 사람, 젊은이, 아이, 아기들도 모두 저승에 오게 하시오”라고 전하였다. 이 때부터 인간에게는 지금과 같은 차례가 없는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다.³²⁾

전형적인 죽음기원신화의 양상을 보이는 자료로, ‘인간에게 죽음이 왜 생겨났는가?’와 ‘인간은 왜 차례 없이 죽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상통하는 제주도의 무속서사시로는 <차사본풀이>를 들 수 있다. <차사본풀이>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생겼는가’라는 문제는 제기하지 않지만 까마귀를 통해 적패지를 잘못 돌려 인간세상에 죽음의 순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설정이 있다. 두 자료는 모두 죽음을 관장하는 신 또는 그 역할을 맡았던 존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의 뜻을 심부름하던 존재의 실수에 의해 죽음의 순서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여 순서 없는 죽음이 생긴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로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이족창세사》에서는 우리에게 없는 인간에게 죽음이 생긴 유래 또한 흥미로운데, “세상에 죽음이 왜 생겨났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죽음이 없다면 어떠했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죽음의 기원에 접근하고 있다. 곧 죽음이 없는 세상은 늙은 사람이 넘쳐나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인간의 온전한 활동이 불가능해지기에 오히려 인간이 신에게 죽음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죽음이 없는 세상을 가정하고 죽음이 없는 데서 비롯되는 혼란스러움을 제시하면서 곧 죽음이 신의 뜻이기보다는 인간의 바람에 의해 기원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³³⁾

이렇게 볼 때 《이족창세사》의 ‘장수와 사망’은 우리의 <차사본풀

32)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66-70쪽 요약.

33) 권태효,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 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6, 56-59쪽.

이>의 뒷부분과 내용상 상통하지만 죽음에 대해 원숭이와 인간의 뜻을 묻는 과정이라든가 죽음이 없는 세계를 상정해 죽음의 기원을 찾는 등 죽음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것보다는 다소 풍부한 신화적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10) 결혼의 기원과 변천

이 세상에 결혼이 생겨나게 된 그 기원과 결혼과 관련된 여러 풍속이 나타나게 된 유래를 서사적으로 장황하게 제시하는 부분이다. ‘결혼의 기원’, ‘선녀가 시집가다’,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가가 시집을 가는 내력’, ‘노래를 주고받는 것의 출현’ 등 모두 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서로간 연결성 없는 다양한 결혼 관련 기원담을 서술해놓은 형태이다. 여기서는 기러기와 같은 동물에게 배워서 세상에 결혼법이 마련되었다고 한다거나 천상세계도 인간세계와 동일한 혼례법을 지닌다는 것, 그리고 혼례에 따르는 여러 풍속의 기원과 더불어 천상으로부터 경서를 가져와 인간세상에 보급하였다고 하는 내용 등 이족의 혼례와 관련된 다양한 의식세계가 잘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결혼의 기원 : 아하시니모어가 만물을 낳았을 때 암수의 구분을 두었으나 짝짓기의 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왕래가 없고 세상이 황폐해지자 천신 지셔무[囓者姆]가 어느 길일에 산등성이의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찾아 새 둥지를 짓고 한 쌍의 알을 낳았다. 그러자 기러기, 들오리, 녹조(綠鳥)가 서로 자신의 알이라고 다투다 천군(天君)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천군은 궁리 끝에 알이 부화하기를 기다리기로 했고, 알에서 암수 기러기 한 쌍이 태어났다. 천신 치경쯔[徹埂自]와 지신 헤이더팡[黑得坊]은 둘을 혼인시키기로 하고 암기러기에게 은장식과 옷을 입혀

서 숫기러기에 시집을 보냈다. 이 때부터 지상의 생물들은 모두 기러기의 혼인법을 배워 혼인을 하게 되었다.³⁴⁾

② 선녀가 시집가다 : 천상의 선녀 쓰이[斯依]가 15세가 되자 그녀의 아름다움이 사방에 퍼져 나무저(尼木則)의 아들이 청혼을 하러 왔다. 쓰이의 아버지는 예물을 신고와 신부를 맞도록 허락한다. 하지만 쓰이는 왜 여자가 시집을 가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시집가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지상에 내려가 물어보기로 걱정한다. 동생을 비롯해 네 명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와 먼저 숲의 사정을 알고자 앵무새에게 묻지만 숲 속의 모두가 시집을 간다고 했다. 차례로 벼랑의 바위신, 바다의 해신 등에게 물었으나 그 곳에 사는 모든 것이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는 시집을 가기로 결심한다. 집의 금부채와 금젓가락을 가져가며 부모의 평안과 장수를 축원하고는 시집을 가서 새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³⁵⁾

③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시집가는 내력 : 나나무우게[訥納木武革]에 사는 샤오우[勺武]에게 아들 셋, 딸도 셋이 있었는데, 혼기가 찬 딸이 하나 있어 빼모어인 저이선저[則依申則]를 만나 딸의 혼처를 부탁했다. 그는 아샤오[阿勺]라는 곳에 사는 아카[阿卡]를 추천하여 혼사가 이루어졌다. 아카는 금과 은, 주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나무로 장식을 만들고 예복을 입고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샤오우의 집으로 시집을 갔다. 아카는 시집간 지 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지만 나이든 부모님을 보고는 그동안 시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제대로 잘 자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당한 설움을 눈물을 흘리며 토로했다. 아카의 여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은 잘할 수 있다며 아카에게 부모님을 봉양하라고 하고는 자신이 아카를 대신해 시집을 갔다. 여동생은 샤오우의 막내아들과 혼인하여 살았으나 시집간 지 삼 년 만에 집으로 돌아와 울며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얘기하고는 아카에게 다시 시집간 것을 돌려주고 자신이 집에 남겠다고 한다. 하지만 아카는 다시 바꾸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바꿔주지 않았다. 이때

34)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71~74쪽.

35) 같은 책, 74~80쪽.

부터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다.³⁶⁾

④ 노래를 주고받는 것의 출현 : 먼 옛날 훌륭한 집안의 뚜쳐사구[都徹沙古]에게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었는데, 바이비어저[白比額則] 뻘모어에게 부탁해 혼처를 잡게 했다. 뻘모어는 구루의 집안에 혼기가 찬 딸이 있는 것을 알고는 의사를 물어 승낙을 받자 사주를 맞춰보고는 혼례를 치루기로 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에게는 이니에[依聶]라는 오빠가 있었는데, 관직에 나가고 부유하게 살려면 배움이 있어야 한다며 집의 금을 얻어 배움을 찾아 길을 떠났다. 사방의 뻘모어를 만나 지식을 얻고자 했으나 다들 학식이 높지 못했다. 어느 날 이니에는 길옆 노인에게 학식 높은 뻘모어를 물었더니 천상의 뻘모어를 찾아가라 했다. 이니에는 말을 달려 천상의 대 뻘모어 스취[施曲]를 찾아가 예를 차리고 제자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3년보다 적게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자로 받아들였고, 이니에는 석 달간 열심히 생활을 했다.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이상한 행동을 보여 스취 뻘모어에게 말했다니 점을 쳐서 여동생의 혼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니에는 남매의 정이 돈독하여 누이동생의 혼례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스취 뻘모어가 지반(知飯)과 지수(知水)를 제자에게 먹여 배우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하고는 경서 세 바리를 수레에 실어주어 인간세상에 경서가 널리 전하도록 하라 했다. 그렇게 이니에가 돌아왔으나 여동생의 혼례행렬은 이미 길을 떠나버려서 멀리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 여동생의 행렬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자 신랑측 뻘모어가 이니에를 괴롭히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지만 모두 맞힌다. 마지막으로 신랑집에 당도하여 친영행렬이 집으로 들어가려 할 때 수수께끼를 내서 맞춰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지만 그것 또한 모두 맞춘다. 이니에는 수수께끼 대결에서 이겨 재물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시집장가갈 때 대가(對歌)를 하고 수수께끼를 하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한다.³⁷⁾

36) 같은 책, 81~88쪽.

37) 같은 책, 88~103쪽.

이상과 같이 결혼 및 그 풍속의 기원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야기 네 편을 담아놓고 있다. 《이족창세사》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장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인간 혼례법의 유래가 기러기로부터 배워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그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선녀가 시집가다’에서는 천상의 법과 인간의 법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혼례법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 천상계에 대한 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재의 결혼법에서 남자가 아내를 맞고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남자가 시집을 갔었는데, 아카의 누이동생이 오빠를 대신해 시집을 간 데서부터 유래되어 여자가 시집을 가는 법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곧 결혼의 풍속에 있어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함께 천상선녀인 쓰이의 선조인 남녀의 행적을 통해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은 ‘남자가 아내를 얻고 여자가 시집가는 내력’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결혼을 전제로 한 의문 곧 왜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을 가는 것이냐 하는 의문을 풀어주고자 하는 부분이다. 한편 ‘노래를 주고받는 것의 출현’은 신랑측과 신부측이 수수께끼를 겨룬다는 점에서 지혜의 대결이다. 지적 우위를 내세워 집안의 우월함을 과시하고자 했던 풍속의 반영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혼례시의 지혜 대결의 승리를 인간 스스로의 능력보다는 천상의 지혜를 빌리고 있다는 점이다. 천상의 빼모어가 제공한 지반(知飯)과 지수(知水)를 먹음으로써 이니에는 세상일을 모두 아는 존재가 된다. 곧 지혜의 원천을 하늘에 두고 있으며, 여기에는 그 뜻을 전해주는 빼모어를 통한 경전의 믿음으로 세상의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깔려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하늘의 경서를 인간계로 가져와

널리 보급하게 되었다는 설정도 주목할 만하다. 경서는 세상의 이치를 담은 책으로 천상으로부터 가져왔다고 한다. 혼례시 수수께끼로 지혜의 대결을 벌이는 유래를 설명하면서 이처럼 천상으로부터 경서가 전달되었음을 밝히고 있어 지혜의 원천을 담은 경서를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교묘하게 연결해놓은 것으로 보인다.³⁸⁾

11) 제전(祭奠)의 기원

이 장에서는 제전이 없었을 때의 폐해를 제시하면서 경을 배우고 제전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노인 및 소관(小官)과 대관(大官)의 사망한 사례를 들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 및 방식 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구성은 '이끄는 말', '제전 이전의 참혹한 광경', '경을 배움', '이어투[依惡突]를 제전함', '어서터[惡奢特], 즈쳐카[支徹卡]를 제전함' 등 5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끄는 말'에서는 경문을 읽는 제전이 생긴 내력을 읊었다고 하는 간략한 도입부이다.³⁹⁾

② '제전 이전의 참혹한 광경'에서는 부모가 죽어도 장사를 지내지 않고 매장을 하지 않아 세상에 참혹한 광경이 펼쳐짐을 서술하고 있다.⁴⁰⁾

③ '경을 배움'에서는 어무[俄木]가 부모가 죽어도 장례를 치루지 않으니 짐승과 차이가 없다며 신하에게 명하여 총명한 지자(智者)를 황부(皇府)로 부르게 한다. 여덟 명의 지자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하고 희생물을 잡아 제를 올려야 한다면서 경서를 배우고 베껴서 제전의 규정을

38) 경서는 천상에서 전해진 천서(天書)로서 여겨 신성시되고, 평상시에는 나무상자에 귀중하게 챙겨서 나무선반 위에 두고 날마다 향을 피워서 경건하게 다룬다고 한다. (櫻井龍彦, 같은 글, 54쪽)

39)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104쪽.

40) 같은 책, 104쪽.

경서에 있도록 한다.⁴¹⁾

④ '이어투[依惡突]를 제전함'에서는 이어투라는 노인이 죽으니 그 아들 딸이 여덟 뻘모어를 청하자 그들이 경서를 지고와 희생물, 술, 초, 향, 종이 등을 준비하게 하여 제전일을 고르고, 종으로 꽃을 비롯한 갖가지 장식과 여러 용구 등을 만들어 제를 올리고 뻘모어의 경 읽는 소리가 염라왕에게도 들리자 죽은 자의 혼백이 저승에서 편히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그 뒤로 자손들도 만사형통하게 되었다.⁴²⁾

⑤ '어셔터, 즈쳐카를 제전함'에서는 대관(大官)인 어셔터과 소관(小官)인 즈쳐카가 돌아가시자 자식이 여덟 뻘모어를 초청해 제전을 준비하고 용품을 마련하며 희생물을 준비해 장례를 치르는 과정을 제시한다. ④와 준비 과정은 비슷하나 출빈(出殯)과정 및 묘지를 조성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⁴³⁾

전체적으로 서사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례의 기원과 치루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담고 있는 부분이다. 서사적인 내용은 극히 약화되어 있는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죽음의식을 치루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을 뿐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여정이라든가 저승의 모습 등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점이 우리의 무속서사시 자료와 갖는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우리의 <차사본풀이>나 <바리공주무가>는 육로와 험로를 거쳐 여러 지옥을 거치면서 당도하는 과정 및 명부의 시왕, 더 나아가 저승에서의 생활 모습까지도 묘사되고 있는 반면 《이족창세사》에서는 죽음을 당한 현실에서 망자를 보내주는 과정만을 보여주는 형태인 것이다. 한편 제전을 올리고 경을 읽자 음부(陰府)의 염라왕이 인간세상에 와서 확인하고는 제전을 올린 혼백

41) 같은 책, 104~106쪽.

42) 같은 책, 106~112쪽.

43) 같은 책, 112~116쪽.

은 즐겁고 편안하게 되었다며 기뻐했다는 대목이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승을 관장하는 신이 염라왕이고, 이승에서의 제전을 통한 정성에 따라 망자가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사고가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는 어떤 서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전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제전의 발달, 제전의 준비와 절차 등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제전의 의식과정을 담은 부분 또는 의식을 규범을 제시하는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Ⅲ.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와의 비교

제주도 지역과 중국 서남부의 이족 분포지역은 첫째,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면서도 그 나름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구축해오고 있다는 점, 둘째, 빼모어나 심방과 같은 사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사의식 및 풍부한 서사시를 전승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런 같은 처지에 있는 두 지역의 창세서사시 자료이기에 양자를 서로 비교해볼 근거가 마련된다. 더욱이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창세서사시가 전승되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족 창세서사시와의 비교에 있어 중심에 놓일 지역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족창세사》는 분량도 방대하고 담고 있는 내용도 세상창조 뿐만 아니라 인류기원, 혼인이나 역법, 제전의 기원과 같은 문화의 기원, 죽음의 기원 등 다양한 기원신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자료를 창세를 중심에 두고 있는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와 서로 비교를 하는 것이 온당한 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창세서사시 자료라는 점에서 일단 비교가

필요하며, 특히 비슷한 지역적, 문화적 환경에 있는 창세서사시의 비교라는 점에서 제주도 창세서사시가 지닌 성격과 의미가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제주도의 창세서사시를 주된 비교 대상으로 삼아 논지를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서 《이족창세사》의 구성 및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족창세사》는 크게 10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속에도 여러 절을 두어 창세뿐 아니라 다양한 기원신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장편의 서사시이다. 그런데 이들 내용을 크게 구분하여 정리해보면 다음 네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 가. 천지개벽
- 나. 인류의 기원
- 다. 홍수범람
- 라. 문화의 기원⁴⁴⁾

따라서 이들 항목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들 네 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양자의 비교표를 만들어 먼저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 비교항목	천지개벽	인류기원	홍수범람	문화의 기원
《이족창세사》	○	○	○	○
제주도 창세서사시	○	△	×	△

44) 李生福, 「云南彝族神話創世史詩同源異類淺析」, 『貴州民族研究』 34期, 1988. 4. 145쪽. 이 글에서는 《梅葛》, 《查姆》, 《阿世的先基》 등 세 자료를 비교하면서 주요 비교항목으로 ‘開天地闢’, ‘人類起源’, ‘洪水泛濫’, ‘文化時代’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족창세사》는 비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비교항목이 큰 틀에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 참고하기로 한다.

가)의 천지개벽은 세상이 창조되고 하늘과 땅, 일월 등이 정리되어 우주가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런 천지개벽은 다시 몇 가지 과정으로 세분하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곧 a. 혼돈으로부터의 세상창조, b. 천지분리, c. 일월조정 등으로 나눌 수 있을텐데,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 두 자료 모두에서 이러한 천지개벽의 신화적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그 양상에 있어서는 서로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a)의 태초의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은 《이족창세사》에서는 아허시니모어라는 창조여신이 창조의 주체가 되고 만물을 잉태하여 낳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태초의 혼돈 상태에서 시니가 만물을 낳아 기름으로써 원초적인 혼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양상이다. 따라서 혼돈의 상태가 부각되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초감제>에서는 세상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출발해 음양의 조화에 따라 스스로 개벽이 일어나는 형국이다. 곧 혼돈으로부터 세상을 창조하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초감제>에서는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처음 생성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붙은 것이 혼합이요 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개벽이요 하늘과 땅이 각각 갈라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엇떠케 되었스릿가 하늘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으로부터 물이슬 소사나와서 음양이 상통한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 하늘머리는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으로 열이고 따머리는 을축년 월축월 월축일 월축시에 축방으로 열이고 사람머리는 병방으로 병자년 병자월 병자일 병자시에 열이시고 동방으로는 이염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출리를 치고 남북방으로는 나래를 들고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⁴⁵⁾

곧 천지가 하나로 붙은 태초의 혼돈 상황에서 음양의 조화 및 갑자를 축의 육십갑자법에 의거 천, 지, 인의 기원을 제시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초감제>의 이런 창세과정은 《이족창세사》의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는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족창세사》가 아닌 이족의 다른 지역 창세서사시 곧 구이저우성에서 전승되는 《서남이지》를 보면 세상창조 과정이 오히려 위의 <초감제>에 그대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늘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땅도 생기지 않았을 때,
아주 텅텅 비었고,
아주 공허하였네.

나중에 변하였다네.
청기(淸氣)가 생기니,
청기는 푸르네.
탁기가 생기니,
탁기는 붉으스레하네.
청기가 올라가서,
올라서 하늘이 되고;
탁기가 내려와서,
태려와서 땅이 되었네.
하늘은 자(子)에서 생기고,
하늘은 하늘과 짝하니,
높은 하늘이 스스로 생겼네.
땅은 축(丑)에서 생기고,

45)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초감제>,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31쪽.

땅은 땅과 짝하니,
 대지가 스스로 생겼네.
 사람은 인(寅)에서 생기고,
 아이[哎]와 푸[嘯]가 결합하니,
 인류가 스스로 생겼네.⁴⁶⁾

청기와 탁기 곧 음양이 하늘과 땅을 이루고 자방, 축방, 인방으로부터 각기 천지인이 생겨났다고 하여 기운에 의해 천지가 스스로 개벽하는 모습을 보이는 형태이다. 곧 제주도의 <초감제>는 혼돈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짐에 있어 《이족창세사》와는 다른 방식의 창조형태를 보이지만 다른 지역 이족 창세서사시 전승본인 《서남이지》와는 상통하는 천지개벽의 관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b)의 천지분리 또한 a)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부분 또한 두 자료가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족창세사》에서는 태초의 혼돈을 정리한 아허시니모어가 아닌 별도의 천지를 분리시키는 존재가 설정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제주도 창세서사시에서는 특정 존재에 의한 인위적인 분리는 나타나지 않고 음양의 조화에 따라 자방, 축방, 인방으로부터 기운의 변화가 일어나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서로 성격이 다른 천지분리의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육지의 창세서사시인 <창세가>와 같은 자료에서는 거인에 의한 천지분리가 나타나고 있어 천지를 분리시키는 특정 주체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족창세사》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하겠다.

《이족창세사》에서는 제 3장에 ‘天地開始分’이라는 별도의 장을 설정하고 있다. 창조여신 아허시니모어가 처음 세상을 창조한 것과 천지

46) 晉珍, 같은 책, 180쪽.

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별도의 것인 듯 정리되고 있다. 그런데 창조여신 아하시니모어가 만물을 잉태하고 낳아 기름에 있어, 하늘과 땅도 그 대 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시니 만물의 어머니여
뱃속의 만물
녹홍황흑백(綠紅黃黑白)
갖가지 색깔의 각종 사물을
전부 낳았네.
하늘과 땅
일월과 별들
흰 구름과 짙은 안개
그리고 찬란한 노을
그리고 바람과 빛
이런 모든 만물을
모두 낳았다네.⁴⁷⁾

곧 천지와 천체, 자연현상 등 모두를 시니가 낳았다고 하여 창조여신 의 생산활동에 따라 천지가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이 형성되었다면 이것으로 천지는 완성된 모습이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뒤에 다시금 별도의 장을 마련해 다른 주체를 설정하여 천지를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곧 천군 셔어무[奢俄木]의 명에 따라 비구[比古]와 판구[盤古]가 다시금 천지를 분리시키고 천체 를 배치하는 등 2차 창조작업을 수행한다. 비구는 9천 층의 상공에 있는 이스뿌[額斯布]에서 천지를 나누고, 해와 달 등의 천체와 자연현상을 배

47) 張仲仁 외 편, 같은 책, 8쪽.

치하여 우주를 정비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천지를 분리시키는 작업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러어터이>에서는 쇠스랑을 이용해서 천지를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關於人類起源的神話傳說>에서는 원숭이의 둘째 자식인 부홍보살[卜洪菩薩]이 황금색 씨레를 사용하여 천지를 분리시키는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주 단순화시켜 설명하고 있는 양상임을 볼 수 있다.

c)의 일월조정 부분 또한 두 자료가 서로 상반된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청의동자 앞이망과 뒷이망에 있는 눈 2개씩이 각기 2개의 태양과 달이 되어 인간세상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형상이다. 하지만 <<이족창세사>>에서는 복수의 일월을 조정하는 신화소는 나타나지 않으며, 다만 검은 측백나무에 의해 가려진 해와 달을 회복해 밝음을 찾고자 하는 과정이 있어 서로 대조적인 신화적 전개 양상을 보인다고 하겠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족 창세서사시 중 <<메이꺼>>과 <러어터이>와 같은 자료에서는 복수로 출현한 해와 달을 정리하는 양상을 보이는 자료가 있어 일월을 조정하는 신화소가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제주도는 아니지만 육지의 자료 중 <<관서지방무가>>에 수록되어 있는 <삼태자풀이>의 경우는 미륵이 도롱소매에 넣고 하늘로 올라가버려 잃어버린 해와 달을 찾는 과정이 제시되는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두 지역의 창세서사시가 전혀 별개의 신화적 전개양상을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나)의 인류기원은 홍수범람 이전 곧 세상창조와 더불어 창조된 인간의 기원을 말한다. 이런 인류기원은 <<이족창세사>>를 비롯한 이족의 여러 창세서사시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원초적인 인류에서 점차 단계별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반면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에서는 태초에 인

간이 처음 창조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양상은 아니다. 창세 과정에서 자방으로 하늘, 축방으로 땅, 인방으로 사람이 솟아났다고 하는 단편적인 제시가 있어 인간의 기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인방에서 사람이 솟아났다고 하고 말았으니 그 인류의 형상이 어떤지 구체적이지 못하고 지금의 인류 모습 그대로인지도 알기 어렵다. 그런데 육지의 경우는 인류의 기원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 설명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다. 우선 강춘옥이 구연한 <생긔>을 보면 <초감제>처럼 자방, 축방, 인방에서 천지인이 기원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주체는 불분명하지만 황토흙으로 인간을 만드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옛날에 史蹟이 그렇고, 인간 사람이 하늘이 열릴적에 子어方으로 열리시고, 이 땅이라 벽(생기다)할 적에 축방이(丑方)로 벽합시고 사람으 寅方으로 범을시게 놓고, 이 天地를 개벽(開闢)하고

사람이라 옛날에 생길 적에 어디서 생겼습니다(까)

天地 암녹산에 가 黃土라는 흙을 모다서 男子를 만들어 노니 女子 어찌 생산될까? 女子로 만들었습니다.

홀기가 사람이 되는대로서, 살 동안에 따에서 만가지 물건을 내서 잡숫고 살아 노이러가다가, 사우(死后)에 떠나므느 그따에 도로 들어가 흘글 보태게 되었습니다.⁴⁸⁾

먼저 자방, 축방, 인방으로부터 하늘과 땅, 인간이 생겨난다고 하여 제주도의 <초감제>와 흡사하게 전개되다가 거기에 다시금 인간창조만을 덧붙이고 형태이다. 황토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이족 창세서사시로 본다면 《阿細的先基》와 같은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先基》에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불완전함을 보여

48) 강춘옥 구송, <생긔>,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51~252쪽.

주면서 단계별 진화과정을 보여주는데 반해 <생굿>에서는 사람이 흙에서 생겨났기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만다. 흙으로부터 처음 생성된 인간이 곧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한편 인간창조에 있어 《이족창세사》처럼 진화론적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자료가 <창세가>이다. 비록 《이족창세사》처럼 오색의 물고기로 부터 원숭이, 독안인, 수안인, 황안인 등으로 변해가는 다양한 모습의 인류 진화 과정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금쟁반, 은쟁반에 떨어진 벌레로부터 인간 남녀가 탄생한다는 것은 그 나름의 진화론적 사고를 함축한 인간창조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다)의 홍수범람은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창세서사시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는 신화소이다. 이족을 비롯한 중국소수민족 신화에서는 이런 '홍수범람'이 가장 중요한 신화소 중 하나로 인식된다. 苗族, 白族, 納西族, 哈尼族 등 윈난성 소재 소수민족 중에서 보더라도 17개 민족에게서 홍수신화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⁵⁰⁾ 하지만 제주도 창세신화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9)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35~236쪽.

한편 박종성은 우리의 창세서사시에는 인간의 창조형태가 세 가지 있다면서 제주도의 자료 형태, <생굿> 형태, <창세가> 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잘 정리해놓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고창학이 구연한 <초감제>를 예시하면서 청의동자 반고씨가 솟아나는 것을 거인 형상의 인간출현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청의동자가 생겨난 것을 인류의 기원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청의동자를 인간이라고 한다면 앞니망과 뒷니망에서 해와 달이 두 개씩 솟아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오히려 제주도의 창세서사시 경우는 음양의 조화와 인방에서 인간이 생겨났다고 하는 부분을 인간의 기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89~103쪽)

50)李子賢, 「云南少數民族的洪水神話」, 『探尋一个尚未崩潰的神話王國』, 云南人民出版社, 1991. 106쪽.

홍수범람의 원인이 대체로 신을 공경하지 않고 도리와 덕을 모르는데 따른 수안인을 징치하는 수단이면서 새로운 인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을 때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징치담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좀더 과감하게 논지를 전개한다면 수명장자의 징치가 비록 홍수로 징치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것에 대응되는 양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명장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지왕에게 불경하거나 심지어 대결을 벌이고자 하며, 악독한 행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이족창세사》에서의 수안인과 같은 성격을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지왕이 이런 수명장자를 징치한 후에 대별왕과 소별왕이 탄생하여 이승과 저승의 분리 및 새로운 세상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세상에 대한 새로운 질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홍수범람과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설정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홍수범람과 관련해 육지의 자료로는 <나무도령과 홍수>담이나 <남매혼설화> 등의 자료가 있어 홍수범람에 상당하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홍수로 인해 세상이 멸해지고 선택받은 인류만이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되는 양상은 큰 틀에서 같은 골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다만 이족을 비롯한 중국소수민족신화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여러 민족의 기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형태를 지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이것은 특히 중국 서남지역 소수민족 창세서사시의 특징이기도 하다.

라) 《이족창세사》에서는 다양한 문화기원이 나타난다. 불의 기원, 역법의 기원, 혼사의 기원, 제전의 기원 등 다양한 문화의 기원이 담겨 있는가 하면 죽음의 기원도 중요한 신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화의 기원 양상은 《이족창세사》보다 《메이꺼》이나 《서남이지》와 같은 자료에서 더욱 풍부한데, 예컨대 《서남이지》를 본다면 불의 기

원, 농경과 목축의 기원, 산과 강, 호수 등 지형의 기원, 절기 곧 역법의 기원, 혼인의 기원, 빼모어의 기원, 계급의 기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⁵¹⁾ 하지만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에서는 《이족창세사》처럼 서사적이고 장편의 문화기원을 담은 요소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초감제> 중 <천지왕본풀이>에 이어지는 “금세상에 어떤 성인이 몬저 나시고…”로 시작하는 <열다섯십오성인> 대목에서 다양한 문화의 기원을 교술적으로 간략히 제시하는 부분이 있어 그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주목하고 자세히 풀이해서 정리해 놓고 있으므로 그 부분을 인용해보도록 하겠다.

이것은 우리 인간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양상, 즉 인간세상에 나아가 생기게 된 이유, 집이 생기게 된 이유, 불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 팔괘가 생긴 이유, 혼인을 하는 법을 알게 된 이유, 그물을 엮어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게 된 이유, 생황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이유, 백초를 사용하여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이유, 시장에서 교역하는 법을 알게 된 이유, 간과쓰기와 지남철을 사용하여 일월성진의 상 보는 법, 역술법, 산술법, 땅을 재어 분할하여 나라경계 정하는 방법을 알게 된 이유, 벼슬법이 있어 사람들이 위계질서를 지키게 된 이유, 그리고 인간세상에 명과 복, 록을 빌 수 있는 불도법이 생긴 유래 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⁵²⁾

문화를 가져다주는 주체가 천황씨, 지황씨, 인황씨, 신농씨, 복희씨, 수인씨 등 중국신화에 나타나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51) 櫻井龍彦, 같은 글, 57쪽.

52) 이수자, 「제주도 창세신화를 통해서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민족문화원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Ⅲ 발표자료집, 2007. 11. 1. 254쪽.

이처럼 다양한 문화의 기원을 단순하게나마 압축시켜 제시해놓은 것은 창세와 더불어 문화의 기원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식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을 제주도의 경우 창세서사시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문화의 기원이 독립적인 본풀이로 구성되어 각각의 제차에서 별도로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족창세사》에서는 창세에서부터 문화의 기원까지가 전체적으로 유기적이고 짜임새있게 연결된 양상을 보인다면 제주도의 경우는 각각의 문화기원 또는 기타 여러 기원을 독립시켜 나름의 제차를 갖도록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무구나 굶히는 법의 기원은 <초공본풀이>, 농경과 목축의 기원은 <세경본풀이>, 출산법은 <삼승할망본풀이>, 죽음의 기원은 <차사본풀이> 등 각기 독립된 제차에서 서사적으로 그 문화의 기원을 제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렇듯 《이족창세사》와 제주도 창세서사시를 비교해 보았다. 하지만 남는 문제가 있다. 이족의 창세서사시 내용 및 구성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하다보니 제주도 창세서사시에서는 보이지만 오히려 《이족창세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신화소가 있다. 김헌선은 제주도에 전승되는 창세서사시의 각편들을 모아 다음 6가지의 창세신화소를 추출한 바 있다.

- a. 천지개벽
- b. 수명장자 정치
- c. 천지왕과 지상국부인의 결연
- d. 아들의 부친탐색

- e. 해와 달의 조정
- f. 인세차지 경쟁⁵³⁾

이 중 a), b), e)에 대해서는 앞서 대응양상을 살펴보았기에 남는 것은 c), d), f)이다. 곧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과 그 아들의 부친 탐색, 인세차지 경쟁 등인데, 이들 요소를 통해 두 지역 자료의 세계관에 있어 확연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천상신과 지상인의 결합양상이 중요하다.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에서는 천부지모가 결합하는 형태로 《이족창세사》에서 이와 대응되는 요소를 찾았다면 홍수 후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류인 뚜아무[都阿木]가 천상의 선녀 다섯과 결연하여 인류의 시조가 되는 모습일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와 《이족창세사》에서는 천상인과 지상인의 결합이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천녀지남(天女地男)의 형태로 반대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곧 제주도 창세서사시에서는 천상과 지상의 결합이 우주의 정돈 또는 신들에 대한 질서를 잡기 위한 결연이라면 《이족창세사》의 결연은 인간세계의 완성 또는 정돈을 위한 결연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창세서사시에서는 천지왕과 지상국부인의 결연에 따라 대별왕과 소별왕이 탄생하는데, 이들은 곧 일월의 혼란을 조정하는 존재이면서 아울러 이승과 저승을 나누어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들이다. 따라서 신들이 수행하는 창세작업의 연장이면서 신들이 관장해야 할 영역을 다투는 것이라 보아도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이족창세사》의 결연은 인간세상에 인류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천군 서어무의 명에 의해 천녀들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그들과의 결합으로부터 정상적인 인류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인

53) 김현선, 같은 책, 91쪽.

간세상의 비정상적 또는 불완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천녀(天女)와 지남(地男)의 결연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도를 비롯한 우리의 창세서사시에는 공통적으로 인세차지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신들의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족창세사》에서는 신들의 위계가 어느 정도 명확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태초에 세상을 잉태하고 낳아 기른 아하시니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군 서어무, 그 다음에는 여러 천신들이나 용왕, 지신 등이 있고, 인간계의 수장은 어무라고 하고 있다. 이들 간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고 위계에 따른 행위들만 보여진다. 그에 반해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에서는 신들의 다툼이 거듭 나타나 는 양상이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수수께끼 대결과 꽃 피우기 내기 등 거듭해서 대결을 벌여 인세를 차지하려고 한다. 이런 신들의 대결로 인해 결국 인간에게는 이승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피해가 돌아오기도 한다. 곧 신들에게 원인이 있어 인간세계에는 혼란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인식을 함께 연결시켜 보면, 《이족창세사》는 신의 입장에 서서 인간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신화적 시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계가 갖춰진 신들의 세계, 인간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그에 반해 제주도의 창세서사시의 경우는 인간의 입장에 서서 신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신의 존재이기보다는 인간의 모습에 보다 가까운 신을 설정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또 그들의 대결 탓에 인간세계에는 악(惡)과 같은 혼란이 남아있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양자는 서로 상반된 신화적 세계관이 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마무리

이 글은 각 소수민족별로 풍부하고 다양한 창세서사시를 전승시키고 있는 중국 서남부 지역, 그 중에서도 이족의 창세서사시를 살펴보고자 마련된 글이다. 이족은 비교적 많은 인구를 지닌 소수민족으로 윈난성, 쓰촨성, 구이저우성 등지에 모여 사는데, 이들이 사는 지역별로, 그리고 지파별로 그 성격이나 내용에 차이를 보이는 창세서사시를 전승시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족의 창세서사시는 윈난성의 《彝族創世史》, 《梅葛》, 《查姆》, <門米間扎節>, 《阿世的先基》, <尼蘇奪吉> 등과 구이저우성의 《西南彝志》, 쓰촨성의 <勒俄特衣>, <關於人類起源的神話傳說> 등 지역별로 지금까지 다양하게 채록된 양상을 보인다. 그 중 이 글에서는 윈난성 홍허주 윈양현에서 채록한 창세서사시 자료인 《이족창세사》를 대상으로 그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자료와의 대비를 통해 그 양상을 정리해보았다. 이를 통해 추출된 주요 신화소 네 가지 곧 천지개벽, 인류의 기원, 일월조정, 문화의 기원 등을 비교항목으로 설정해 제주도 창세서사시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비록 제주도 자료가 《이족창세사》보다 분량도 짧고 창세과정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양상이지만 전반적으로 대응되는 양상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천지개벽은 a. 혼돈으로부터의 세상창조, b. 천지분리, c. 일월조정 등으로 구분하여 대비를 한 결과 제주도의 자료와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양상은 적었지만 이족의 여타 창세서사시 자료나 우리의 육지 창세서사시 자료를 아울러 견줄 때 대응양상이 뚜렷해 창세서사시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인류기원에서는 이족의 창세서사시 경우 단계별로 진화되는 과정을 잘 설정해놓고 있어 이 신화소가 특히 발달된 양상이지만 우리 자

료의 경우는 육지의 <창세가>에서 인류기원의 진화론적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홍수범람은 제주도 창세서사시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만 <천지왕본풀이>의 수명장자 징치담이 악인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재편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화소로 파악했다. 이외에 문화의 기원은 제주도 창세서사시에 직접 그 모습을 보이지는 않지만 그에 이어지는 <열다섯십오성인> 대목이 교술적으로 문화를 가져온 신격들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라는 점에서 대응양상을 보인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양자의 비교항목에서 제외된 제주도 창세서사시 요소들 곧 천부지모의 결연, 부 탐색, 인세차지경쟁 등을 두고 보았을 때 《이족창세사》는 신의 입장에 서서 인간세상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신화적 관점을 갖는다면 제주도의 창세서사시는 인간의 입장에서 서서 신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 양자는 신화적 세계관에 있어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이 글의 일차적인 목표는 풍부한 창세서사시 전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국 서남부 지역의 창세서사시를 온전히 소개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양하게 전승되는 이족 창세서사시 자료 전반을 정리하고자 했고, 그 중에 특히 풍부한 신화소를 갖춘 《이족창세사》를 택해 되도록 그 내용 전반을 소개하고자 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제주도 창세서사시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창세서사시가 지닌 보편성과 개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단 나름의 목표는 이루었으나 남은 과제가 참으로 많다. 우선 다양하게 전승되는 이족 창세서사시의 자료부터 모으고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소수민족의 자료를 대함에 있어 그저 한 민족에게는 한 형태의 창세서사시가 전승될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 전혀 별개로 보아도 무방

할 창세서사시 자료가 각기 전승되고 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때문에 특히 중국 서남부의 소수민족의 창세서사시 자료를 살핌에 있어서는 단순한 접근보다는 다양한 전승자료들을 모으고 이해하는 작업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 서남부에서 전승되는 창세서사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창세서사시나 홍수신화, 그리고 다양한 영웅서사시 등 풍부한 신화적 원천을 가진 지역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제의와 더불어 서사시가 전승되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어서 전승현장과 더불어 서사시의 구연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권태호, 「중국 운남 소수민족의 제의와 신화」, 민속원, 2004.
- 권태호, 「인간 죽음의 기원, 그 신화적 전개양상」, 『한국민속학』43집, 한국민속학회, 2006. 6. 56~59쪽.
- 권태호, 「중국소수민족 이족의 창세서사시 연구」, 『제주도본풀이 학술세미나 자료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11. 15. 173~204쪽.
- 김선자, 「소수민족신화기행 위난이야기 -이족」, 경향신문, 2008. 4. 2.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86~132쪽.
- 김현선, 「세계 창세신화에서 본 한국 창세신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민족문화원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Ⅲ 발표자료집, 2007. 11. 1. 318~358쪽.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35~236쪽.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89~103쪽.
- 서유원, 「중국민족의 창세신 이야기」, 아세사문화사, 2002.
- 이수자, 「제주도 창세신화를 통해서 본 민족문화의 정체성」, 『한국신화의 정체성을 밝힌다』, 민족문화원형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Ⅲ 발표자료집, 2007. 11. 1. 230~277쪽.
- 임석재, 임석재전집7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0. 138~139쪽.
- 임석재·장주근, 「관서지방무가」, 문화재관리국, 1966. 521~526쪽.
-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금화사(동경), 1973.
- 주영하, 「이족의 사머니즘 ; 중국 쓰촨성 량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제5호,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1999. 55~85쪽.
-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각, 2007. 298~299쪽.
- 홍희, 「양산 이족 비머의 주술」, 『중국소수민족의 원시종교』, 동문선, 2004. 113~126쪽.
- 陶陽鍾秀, 『中國創世神話』, 上海人民出版社, 1987. 104~116쪽.
- 云南省 民族民間文學楚雄調查隊, 『梅葛』, 人民文學出版社, 1960.

- 李生福, 「云南彝族神話創世史詩同源異類淺析」, 『貴州民族研究』34期, 1988. 4. 145쪽.
- 李子賢, 「創世史詩的特征」, 『探尋一個尚未崩潰的神話王國』, 云南人民出版社, 1991. 273~284쪽.
- 李子賢, 「云南少數民族的洪水神話」, 『探尋一個尚未崩潰的神話王國』, 云南人民出版社, 1991. 106~117쪽.
- 張仲仁 외 편, 施文科·李亮文 合唱, 希吾戈·晉學旺 역주, 『彝族創世史』, 云南民族出版社, 1990. 1~116쪽.
- 晋珍, 「道家混沌哲學的彝族創世神話」, 云南人民出版社, 1993. 122~199쪽.
- 晋忠良, 「彝族」, 中國水利電出版社, 2004. 1~2쪽.
- 赤松智城·秋葉隆, 심우성 역, <초감제>, 『조선무속의 연구』, 동문선, 1991. 231쪽.
- 伊藤清司, 「二度の人類起源 - 中國西南少數民族の創世神話」, 『東아시아의創世神話』, 弘文堂, 1989. 28~52쪽.
- 櫻井龍彦, 「混沌からの誕生 - 《西南彝志》を中心としたイ族の創世神話」, 『東아시아의創世神話』, 弘文堂, 1989. 53~78쪽.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I-jok-changsesa(Founding myth of Yi ethnic group)》 and Founding myth in Jeju island

Kwon, Tae-Hyo*

20 ethnic groups in Southwestern part of China,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eas in terms of transmitting founding myths, have handed down their own founding myths. Among them, Yi ethnic group draws more attention since it is densely populated and has transmitted regionally diverse founding myths. This paper aims to find both universal and specific features of Korea's founding myths by comparing Yi's founding myth recorded at Wienyanghyeon, Winnanseong, China and one from Jeju island.

Firstly, by examin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I-jok-changsesa》, this paper sets four comparison points with founding myths in Jeju island: beginning of the World, origin of mankind, adjustment of the number of moons and suns, and origin of culture. By doing this, Jeju's one is apparently shorter than one of 《I-jok-changsesa》, descriptive mainly about founding procedures but still there are some aspects to be able to compare in general. 'beginning of the World': by contrasting several points (1) to create the World from chaos, 2) to separate the heaven and earth, 3) to adjust the number of moons and suns, although we cannot clearly find feasible points to match up, a kind of general comparison between other founding myth

* curator,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of Yi tribe and mainland Korea's ones generates clear points. In 'origin of mankind', while Yi's 《I-jokchangsesa》shows highly developed attributes by depicting procedural evolvement, Korea's myths show that mainland myths called <Changsega> better reflect the evolutionary aspects rather than ones from the island do. 'Flood inundation' which does not appear in Jeju's myths, functions as one of attributes of founding myths since tales on chastising bad people in <Cheonjuwangbonpuri> defeated the bad people and arrange the New World. In addition, 'origin of culture' can be linked with the <fifteen saints> scene of Jeju founding myths which is epic description of divine existences.

Meanwhile, some excluded attributes of the Jeju founding myths(e.g. separation between the heavenly father and mother earth, seeking a father, competition to occupy the human world), reflect perspectives of human-being which observe the realm of the divine, while 《I-jok-changsesa》one do reverse way of observing. In other words, when it comes to the World view in the two kinds of founding myth, we can see distinctive aspects of understanding.

Key Words

Yi tribe, 《I-jok-changsesa》, Founding myth, Beginning of the World, Origin of mankind, Flood inundation, Origin of culture

교신 : 권태효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길 35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E-mail : 032918@hanmail.net 전화 : 02-3704-3102 / 011-9893-0297)

최초 투고일 2008. 12. 31

최종 접수일 2009. 2. 17